

News

우리·신한 '거액외환 이상거래'...금감원, 모든 은행에 점검지시

연합뉴스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에서도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 발견... 이번 수사 검사에서 자금세탁 방지법과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 집중적으로 검토 중
거액의 송금이라 해당 업체의 무역 거래 규모에 맞는 자금인지 등 여러 가능성을 보고 있어... 신한은행의 거래 관련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8천억원에 버금가...

이자장사 못매 속 '최대 실적' 은행... 주담대 금리 감면까지 내놨다

서울신문

시중은행들, 연 3~5%대의 정기 예적금 상품 출시하면서 대출금리는 낮추는 모습... 신한은행, 4일부터 신규 취급 주담대 금리를 최대 0.35%p 내리기로...
또한 지난달 말 기준 연 5%가 넘는 주담대 이용 차주에 대해 1년간 금리를 연5%로 낮추고 초과분은 은행이 감당하는 취약 차주 프로그램 가동 예정

5대 은행 대기업 대출 90조 돌파...자금 조달 막히자 창구 '노크'

뉴스1

5대 은행의 지난 6월말 기준 대기업 대출 잔액은 총 91조 9,244억원으로 집계... 6개월 연속 증가하며 90조원 돌파
최근 들어 급격히 가팔라져... 주요 배경으로 시장금리 상승이 꼽혀... 발행에 부담느낀 회사들이 은행으로 몰려... 퇴직연금 등 부수적 수입 올릴 수 있는 가능성

인터넷은행 대출 6개월째 늘어 중저신용자 생활비 대출 영향

동아일보

6월말 기준 인터넷은행 3곳의 대출 잔액은 총 39조 7,463억원으로 집계... 작년 말 대비 6조 2,634억원 증가
은행별로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순으로 많아... 5대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6개월째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 반면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대출 늘리는 중

생보사, 고객 이탈 축소에도 속얇아...무·저해지 리스크 '고민'

데일리안

국내 23개 생보사, 올 1분기에 지급한 해지환급금은 총 6조 8,06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0% 감소... 코로나19 계기로 건강관리 관심 높아지며 보험 유지 수요가 높아져...
삼성생명의 해지환급금이 1조 4,76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2% 감소... 업계는 관련 상품에 과도한 쏠림 벌어지지 않게 신중기할 필요 제기

장마 끝나려면 멀었는데...단 하루 폭우에 차량 326대 침수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경기도에 평균 170mm가 넘는 장맛비가 지난 30일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요 4사에 접수된 관련 피해 326건, 손해액 38억 4,400만원으로 집계
올해 장마 기간이 중부와 남부 지방은 오는 25일까지, 제주는 오는 20일까지라는 예보 고려하면 올해 차량 풍수해 피해 상당할 것으로 추정

오늘부터 증권사 신용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변동성 완화조치'

KBS

금융위원회, 지난 1일 증권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 열고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등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하기로...
오늘부터 석 달간 면제 예정...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 결정할 수 있어...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 완화

금융당국 공매도 특별점검 ·거래소 특별인력 증원 '공매도 안정에 올인'

머니투데이

금융당국 공매도 특별 점검 착수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특별 감리 인력 확대... 이제 적시에 대처하려고 한다고 개편 배경 설명
공매도 금지나 제도 개편 및 보안 등 직접적 조치 대신 점검과 조사 등을 통해 공매도 시장에 압박 가하는 것으로 해석

Compliance Notice

본 조서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서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